



“이게 최선입니까?” 7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안 추모탑 앞 좌·우에 설치된 청동 부조작품과 청동 군상작품이 선녹색 우레탄으로 코팅 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은 민중반란” 망언 이영조 교수 복직 반발 경희대 학생들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표현(광주일보 2010년 11월 20일 2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이영조 전 위원장이 경희대 교수로 복직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경희학원 민주단체협의회(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경희총민주동맹)는 최근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는 이영조씨의 복직 반대 및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영조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이 교수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개최한 국제사건지명 발표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으로, 제2 4·3사건에 대해서는 ‘폭동’이라 칭했던 사례를 들었다.
이에 경희대 국제대학원 측은 “이영조 교수는 위원회 활동 종료와 동시에 올해 초 정교수로 복직했다”며 “교원 인사 기본규정상 휴직사유가 끝났기 때문에 복직되는 것이며, 이 교수의 복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4분 / 해질 18시 33분 / 달돋이 08시 05분 / 달질 21시 46분

일교차 커요
대부분 지방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구분	구분	기온
광주	구름조금	-3/10℃
목포	구름조금	0/9℃
여수	맑음	1/9℃
나주	구름조금	-5/11℃
완도	구름조금	-1/10℃
구례	구름조금	-5/10℃
해남	구름조금	-5/10℃
장흥	구름조금	-5/11℃
순천	구름조금	-1/11℃
영광	구름조금	-3/8℃
진도	구름조금	-2/10℃
전주	구름조금	-3/9℃
군산	구름조금	-3/8℃
남원	구름조금	-6/9℃
홍산도	구름조금	2/9℃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목포, 제주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보통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	-3/10	0/11	1/13	3/15	7/12

페인트 뒤집어 쓴 5·18 청동부조물

관리소 수천만원 들여 ‘뺨질식 보수’ 전문가들 “작품 원형 훼손 부추겨”

국립 5·18 묘지관리소가 묘역에 설치된 청동작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뺨질식’으로 일관해 예산 낭비는 물론 작품원형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동작품의 표면 변색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우레탄 페인트로 작품을 코팅해 청동 소재 고유의 장중한 멋과 질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7일 5·18 묘지관리소에 따르면 5·18 묘지관리소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시·도급 5·18 민주묘지 안 추모탑 앞·좌·우에 설치된 길이 35m·높이 2m

크기의 청동 부조(5월 민주항쟁도)와 가로 4m·세로 2m 크기의 청동 군상작품(무장항쟁·대동세상군상) 2곳에 대한 표면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1996년 6월 5일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들 작품은 불의에 저항해 총을 들고 항쟁하던 시민군과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며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80년 5월 당시의 대동세상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작자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시·도급 5·18 민주묘지 안 추모탑 앞·좌·우에 설치된 길이 35m·높이 2m

광주, 오늘 일제고사 안 본다

전남은 객관적 자료 위해 모든 초·중서 시험 치러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실시해오던 초·중학생 대상 전국 교과학습 진단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초·중학교가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
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8일 치러지는 이번 평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순회 출제해오던 시험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출제하는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자율에 맡겼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평

가가 학생,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어 올해부터 교육청 단위 일제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번처럼 전국 교육청 단위에서 출제된 시험을 보든, 학교에서 자체 출제된 문제를 학생을 평가하든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영·수 등 핵심과목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전체 429개 초등학교, 246개 중학교가 모두 시험을 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진단평가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단평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성적 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발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직선제 개선 본격 논의

7인 위원회 첫 회의 “9월 이전 새 방안 도출”

조선대 총장 선출방식(직선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조선대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이원구 조선대 이사(전 보훈병원장)를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14대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을 위해 행보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원구·강창원·정순영 등 이사 3명과 교수평의회 의장·직원노동조합 위원장·총학생회장·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등 구성원 대표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신입 14대 총장 선거 전에 새로운 선출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직선제가 대학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조선대는 옛 경영진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직선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호남대·동신대도 여성 ROTC 선발 가능

육군 109개 대학 확대
지난해 전남대와 숙명여대를 비롯해 7개 대학에서 시범 모집했던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을 올해부터 전국 109개 대학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대·호남대·동신대 등 학군단이 설치된 모든 대학의 2학년 여학생은 이달 중 시행되는 제52기 ROTC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후 5년간 대학을 다녀야 하는 3학년 여학생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수능·관리 등 여학생의 이유로 선발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 학군단은 여성 ROTC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욕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립건강 (주)은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 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 :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제품과 달리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품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 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명품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로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케르미네롤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담물론! 감성적 지원! 값 5,000원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삼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